



난감한 이웃 일본의 복잡한 내면

이제는 고인이 된 문예평론가 가토 노리히로(加藤典洋)는 일찍이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어 ‘하나’의 인격이 되지 못한 전후일본의 상황을 ‘지킬박사와 하이드’에 비유한 바 있다. 그가 ‘인격분열’을 거론한 이유는 어느 각료가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 발언을 하면, 바로 같은 내각의 다른 각료가 앞선 사죄를 부인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인격분열’의 양상은 지난 20년 사이에 크게 달라졌다. 단적으로 망언하는 정치인의 수는 늘었지만, 사죄의 역사를 고수하려는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는다. 또 과거에는 망언을 하면 바로 사임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다. 과연 일본은 여전히 가토가 말한 ‘인격분열’에 시달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과거에 인격분열이 있었다면 오늘날 그것은 망언의 인격이 사죄하는 인격을 제압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학자 나카노 고이치(中野晃一)는 『일본정치의 우경화』에서 ‘재군비’와 ‘역사 다시 쓰기’에 대한 지향을 ‘우경화’의 판별 기준으로 제시하며 대체로 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2012년 말부터 정치인들 사이에 후자의 경향이 ‘가속화’되었다고 말한다.¹⁾ 실제로 이 시기 동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제한했던 ‘안보법안’의 개정(2015)이 이루어졌고, 자민당의 새로운 헌법개정안(2018)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이 전시기 징용공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아베 정부가 취한 ‘수출제한’ 조치가 이런 정치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나왔음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현대일본의 대중문화도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정치의 우경화를 선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예컨대 그것은 2000년대 이후 소위 ‘특공’이 일본의 대중문화에서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로센 조종사의 전쟁체험을 그린 소설 『영원의 제로(永遠の0)』는 2006년 출간되어 최근까지 5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이런 흥행에 힘입어 소설은 영화로 제작되었다. 2013년 12월 개봉된 동명의 영화는 2014년 한 해에만 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약 87억 엔에 달하는 흥행수입을 기록했다. 영화 『영원의 제로』의 개봉에 앞서, 2013년 7월에는 제로센 제작자로 알려진 호리코시 지로(堀越二郎)의 일생을 그린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바람이 분다(風立ちぬ)》가 개봉되어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이시하라 신타로(石原太)가 제작 총괄을 맡아 화제를 모았던 영화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러 간다(俺は、君のためにこそ死ににいく)》(2007)도 빼놓을 수 없다. 전쟁 당시 특공 출격기지였던 치란(知覧)항공장을 배경으로 특공 임무로 향하는 청년들을 카메라에 담은 이 영화는 개봉 이후 ‘전쟁미화 영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소설 『영원의 제로』의 흥행을 기점으로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일종의 ‘특공 붐’이 일어났지만, ‘특공’을 비롯해 ‘전사자’라는 소재는 패전 이래 오랫동안 신중하게 다루어졌다. 전후일본에서 전사자에 대한 대중적 표상은 영화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1950) 속의 학도병처럼 전쟁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징병되어 목숨을 잃은 ‘무고’하고 ‘순수’한 ‘수동적 희생자’였다. 일반적으로 전후일본의 전사자의 표상은 1980년대 접어들어 질적 변용을 나타냈다고 말해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수상의 등장을 계기로 ‘야스쿠니 문제’가 부상하고, ‘전후정치의 총결산’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존의 ‘소극적 희생자’에 대해 ‘적극적 희생자’가 대치되는 양상이 펼쳐졌다. 특공을 ‘적극적 희생자’로 표상하는 문화적 행위의 유형은 그 자체로 소위 ‘전후평화주의’에 입각한 역사 인식의 약화를 보여준다. 달리 말하면 ‘특공 붐’은 전전의 군국주의에 대한 부정 위에 성립하는 전후평화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역사인식의 ‘후퇴’ 혹은 ‘퇴행’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

현대 ‘특공 붐’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소설 『영원의 제로』를 ‘우익 엔터테인먼트(右翼エンター)′라고 비판하는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전쟁표상에 관한 대중문화의 ‘퇴행’ 현상은 자주 우경화하는 일본사회의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전후평화주의의 역사관에 대한 공격(내지 부정)을 곧 ‘우경화’로 규정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전후민주주의를 비판하면 바로 ‘우익’으로 연결시키는 사고의 관성도 문제지만, 문제가 되는 현재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우경화’로 규정하는 일본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법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²⁾

예를 들어 소설 『영원의 제로』의 경우를 보자. 이 소설은 ‘특공’이라는 소재를 전면내세웠고 국가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청년들을 ‘적극적 희생자’로 소환하고 있다. 소설이 특공과 전쟁을 찬미하는 ‘우익문학’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정작 소설의 주인공 미야베 규조(宮部久蔵)는 특공에 지원하지만, 군국주의자가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국가를 위한 희생보다 개인의 목숨을 우선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

2) 197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를 결국 ‘우경화’라는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한국의 일본인식의 관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 남기정, 「서문 일본 우경화 신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위하여」, 『일본 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2017

에 미야베를 기억하는 일부 전우들은 그를 ‘겁쟁이’, ‘일본해군의 수처’라고 비난한다. 이처럼 특공을 다루는 소설 속의 시선은 단순하지 않다. 나아가 소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사회적 우경화의 지표로 간주하는 것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등에 공개되어 있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아도, 일부 특공의 비극적 삶에서 전쟁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독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독자들은 과거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감상을 피력하고 있다. 특공을 ‘영웅’시하는 시선도 있지만, 소설을 읽고 청년들을 특공으로 내몰았던 군 상층부에 분노했다는 감상이 다수를 이룬다. 특공을 대하는 작가의 시선만이 아니라 소설에 대한 독자의 평가도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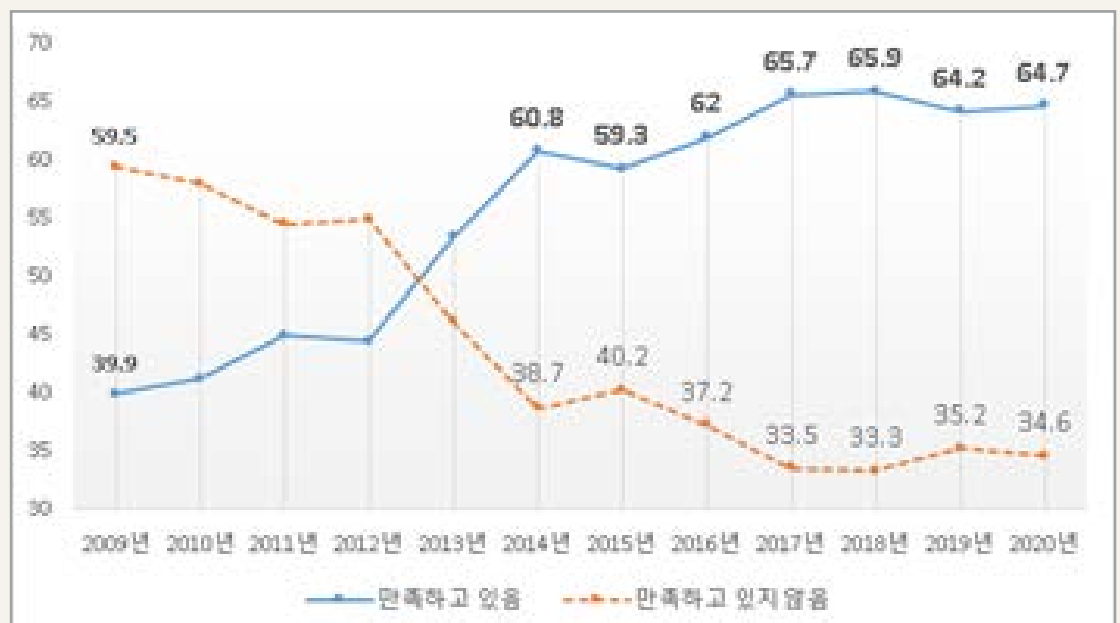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일본의 대중문화에서 전후민주주의와는 이질적인 전쟁 표상과 전쟁에 대한 ‘수정주의적’ 개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1974년 TV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제작되었던 《우주전함 야마토》는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젊은 군인들이 우주전함으로 소생한 ‘야마토’에 승선해 ‘적’인 가미라스와 우주전쟁을 거듭하며 자애로운 여성이 사는 행성 ‘이스칸달’을 향한다는 스토리에는 패전국 일본의 트라우마를 여성(모성)으로부터의 승인에 의해 해소하려는 욕망이 엿보인다. 침몰한 야마토와 피폭의 트라우마는 《우주전함 야마토》가 우주전함으로 부활해 인류를 위해 ‘방사능정화장치(코스모크리너)’를 찾아나서는 설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좌절의 기억이 영광의 계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전함 야마토가 ‘파동엔진’을 장착한 우주전함 야마토로 부활하는 설정은 패전의 기억을 침단의 기술력을 통한 기념비적 승리의 서사로 전환시키는 의도³⁾를 반영한다.

하지만 《우주전함 야마토》가 패배의 기억을 영광의 계기로 반전시키고 있다는 점에만 주목해 그것을 패전을 ‘부인’하는 ‘우익적’ 텍스트로 간단히 처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 안에서 소생한 야마토는 군국주의 부활보다는 패전의 고통을 딛고 고도성장을 통해 도약(부활)한 일본의 비유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우주전함 ‘야마토’의 목적은 적인 가미라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칸달에 있다고 알려진 ‘방사능정화장치’의 운반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과도 같았던 전함 ‘야마토’를 부활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가미라스의 지구에 대한 유성폭탄 공격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폭 사용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우주전함 야마토》는 ‘과거지향적’이고 우회적으로 ‘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인들의 목적은 정확히 말하면 가미라스와의 전쟁이 아니라 방사능정화장치의 입수이고, 가미라스와의 전투는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스칸달로 향하는 도정에서 동반되는 불가피한 대결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주전함 야마토》는 ‘전후평화주의’를 부정하기보다는 타협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정은 특정 텍스트의 내용만을 갖고 그것의 ‘우익적 정체성’을 판별하는 게 간단치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생산적일 수 없음을 새삼 일깨워준다.

다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와보자. 일본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헌법개정과 ‘애국심’의 중요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집권세력과 ‘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우익’들의 존재는 일본사회가 ‘우경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대중문화에서 만연하는 ‘특공’의 존재 또한 현대일본의 ‘우경화’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

기에 발휘되고 있는 상상력은 ‘우경화’라는 다분히 정치적인 프레임에 포섭되지 않는 ‘잔여’를 노출시키고 있다. 「영원의 제로」를 둘러싼 대중들의 엇갈린 반응들에서도 즉 ‘우익 엔터’와 ‘반전 소설’ 사이에서 표류하는 인식은 ‘우경화’가 분석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 확장된 맥락 속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제기한다.

그런 점에서 ‘우경화’라는 개념의 유효성을 인정하더라도, ‘정치의 우경화’와 대중의 정치(무)의식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일본을 둘러싼 표상과 대중의 의식은 섬세한 구분을 요구한다. 일례로 2012년 이후 일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조사 결과는 ‘우경화’로 환원될 수 없는 일본인들의 집합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다음 그래프는 매년 일본의 내각부가 실시하는 사회의식 조사 가운데 ‘사회전체의 만족도’에 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우경화’의 원년으로 간주되는 2012년을 지나면서 ‘만족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4-45%에서 65%까지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



[그림 1] 사회전체의 만족도

시간을 되돌려 보면 생활만족도가 상승하는 시기의 일본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다. 경제면에서 ‘장기불황’이 지속되었고, ‘저출산/고령화’(2010년부터 인구감소 시작), ‘지방소멸’, ‘격차확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는 풍요와 안전으로 상징되던 ‘전후체제’의 종언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다. 결과적으로 일본사회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생활만족도와 일본에 대한 자부심은 높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인식 간의 어긋남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것은 예견되는 불행을 미루고 싶다는 ‘회피’의 표현일까⁴ 아니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절망’의 표현일까?⁵ 분명한 것은 정치인들의 ‘언어’와 대중문화의 ‘역사적 상상력’은 일본의 자존심을 강조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일본은 사회와 망언 사이의 분열을 지나 현재에 대한 긍정과 미래에 대한 절망이 공존하는 새로운 분열을 겪고 있다.

4) 야마구치 지로, 김용범 역, 『민주주의는 끝났는가』, 어문학사, 2021.

5) 후루이치 노리토시, 이연숙 역,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민음사, 2014.



서동주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